



미 국

캠필로박터의 근원지 발견

양계농장과 가공공장에서 병원성 박테리움 캠필로박터를 줄이는 일은 그 원인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며, 그 원인중의 하나가 새의 폐에 있다고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ARS) 학자들이 보고했다.

박테리아는 생산과 이동 또는 열탕처리 기간동안 생닭이나 생체육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두가지 경우에 캠필로박터는 호흡기 공기주머니와 복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상업적 제조공장에서 연구자들은 3일 동안 매일 열탕처리 전후 각각 10개의 생체육을 수집해 전체 생체육과 호흡기관을 행구고 캠필로박터, E. coli, 다른 박테리아 등의 샘플들을 채취했다. 그 결과들은 생체육과 호흡기관 샘플에서 같은 형태를 보여줬다. 또한, 호흡기관의 캠필로박터의 수와 유형은 열탕처리 전후가 같았다. 이것은 열탕처리 전 생체육의 내부가 캠필로박터 오염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시해준다. ARS 마이크로생물학자 베랑과 동료학자들에 따르면 조류들이 생산이나 이동기간 동안 공중의 박테리아를 흡입 할 수 있었다. 박테리아의 상당한 수준은 진행과정 이전에 조류의 호흡기관내에 이미 있음을 의미한다.(샤론 듀람, WP)

싱가포르

닭을 학습하고 연결해 주는 인터넷 도구

싱가포르 국제 대학 연구원들이 만든 새로운 인터넷 장치는 전체적으로 수준별 학습을 제공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터치 인터넷 시스템은 사용자를 닭 모양의 인형, 컴퓨터 센서, 웹캠을 통해 실제 닭과 연결시켜 준다. 사용자는 실제 닭 가까이 있는 2차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 촉감 정보를 중계하는 센서를 가진 인형을 키울 수 있다. 이 컴퓨터는 닭에 의해 파스해진 가벼운 무게의 재킷에서 가벼운 진동 모터를 유발시킨다. 그 새들은 인형을 쓰다듬을 때 같은 장소에서 사용자의 감촉을 느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가금류들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거의 2년 동안 그 기술을 개발해 온 아드리안 데이비드 적은 말했다. 적은 그 시스템이 개와 고양이

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그들의 애완동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동물원 방문객들이 사자나 곰을 쓰다듬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측은 예견했다.(WP)

태 국

CPF, 육계 대규모 생산단지 준공

AI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당면 냉장 냉동 계육수출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태국 식품대기업 CP group 산하의 CPF사는 Conrachashima현에 총액 85억바트(약 2,300억원)의 대규모 육계 생산 단지를 준공하였다.

여기에는 지리적으로 육계 집중사양 지역과 떨어져 있고 총 부지면적 약 704헥타르로 동사는 수출용 가열가공계육을 중심으로 2006년의 가공계육수출량 12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AW 2005.09.15)

인 도

암탉 한마리가 종신형 죄수 4명을 낳은 사연

인도에서 암탉 한마리로 인해 이웃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벌어져 4명이 종신형을 받게 된 기괴한 사연이 IANS 통신을 통해 소개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7년쯤 전인 지난 1998년 4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북동부 아삼주의 사타차파리 마을에서 한무리의 아이들이 뛰놀고 있을 때 비쩍 마른 암탉 한마리가 아이들이 놀고 있던 마당으로 뛰어 들었다.

닭을 붙잡은 아이들은 서로 임자라며 소유권 분쟁을 벌이게 됐고 이는 곧바로 두 패로 나뉜 어른

들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원로들이 중재를 위해 마을회의를 소집했지만 한 남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흥기를 들고 회의장에 나와 상대측 남자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는 다시 이웃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으로 이어져 결국 여성 1명을 포함해 2명이 더 죽은 뒤에야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주동자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현지 지방법원이 지난 2002년 주범 7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 범인들은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날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IANS 통신은 전했다.(IANS)

필리핀

필리핀에서 첫번째 조류인플루엔자 보고

필리핀 당국은 마닐라 남부 부라칸 지방의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농업부 장관 Athur Yap는 그 바이러스가 위험한 H5N1종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매우 낮은 병원성종이라 말하며 국민이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건강부 장관 Francisco Duque는 도내의 농업부는 부라칸 칼루핏의 오리농장에서 지난 수요일 그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그 오리들은 추려서 죽이고 샘플들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오스트리아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다. 1500억 페소(한화 2조7000억) 가금산업을 가진 필리핀은 조류인플루엔자에 영향받지 않은 아시아 나라중의 하나이다. 필리핀은 만에서 질병방지기 위한 엄격한 사전 조치를 제정해왔다. 당국은 잠재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지역으로 확인된 25개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AP)